

『개역개정』 성경 개정을 위한 문체 논의

전무용*

1. 들어가는 말

성경을 개정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성경 원문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새로워졌을 때, 이를 본문에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다른 하나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언중들의 언어가 달라졌을 때, 이를 본문에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성경을 개정하는 일은, 새로운 독자를 상정하는 것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기존 성경의 독자들’에게 ‘더 정확하고 더 분명한 성경’, ‘의미 소통이 더 잘 되는 성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제 『개역개정』을 다시 개정해야 할 때가 되었다. 한글의 표기법이 달라진 것이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한글 맞춤법」은 2017. 3. 28.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7-12호(2017. 3. 28.)이다. 「표준어 규정」은 2017. 3. 28.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7-13호(2017. 3. 28.)이다. 「외래어 표기법」은 2017. 3. 28.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7-14호(2017. 3. 28.)이다.¹⁾ 『개역개정』 4판이 2005년에 출판되었고, <1988년 1월 19일 대한민국 문교부 고시 제 88-1호 「한글맞춤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결정된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을 본문에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맞춤법만을 개정하는 최소 개정의 원칙으로 개정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 한남대학교에서 국어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전 대한성서공회 번역실 국장. kbsjmy@hanmail.net.
1) 국립국어원, “한국어 어문 규범”, <https://kornorms.korean.go.kr/main/main.do> (2021. 7. 12.) 참고.

세대를 30년 정도로 생각할 경우, 성경을 한 번 개정하는 데 통상 10년 내외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역개정』의 개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언어가 변화되는 것은 맞춤법의 문제만은 아니다. 언중들이 사용하는 낱말도 달라진다. 성경에서 이러한 말을 찾아보자면, ‘화평’과 ‘평화’, ‘혼인’과 ‘결혼’ 같은 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구글 검색기로 검색해 보니, ‘혼인’은 10,400,000회가 검색되었고, ‘결혼’은 122,000,000회가 검색되었다. ‘화평’은 1,820,000회가 검색되었고, ‘평화’는 52,800,000회가 검색되었다.²⁾ 이 검색 결과를 절대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지만, ‘화평’과 ‘혼인’보다는 ‘평화’와 ‘결혼’이 더 많이 사용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새로운 성경을 번역한다면, 주요 용어의 선택에 있어서 이러한 검색 빈도수는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성경을 개정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기존의 용어를 버리고 새로운 용어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 ‘혼인 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등 중요 행정 용어들이 ‘혼인’을 사용하고 있는 점도 판단에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방향’(신 1:7, 40; 2:1)과 ‘향방’(고전 9:26) 같은 말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미세하게 뜻이 달리 설명되어 있지만, 같은 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지금은 ‘향방’은 아주 드물게 쓰이고, ‘방향’이 언중들에게 널리 쓰이는 말이다. 이러한 점을 두루 고려하더라도, 개정 여부는 교회의 대표들로 구성된 개정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³⁾

본고에서는, 『개역개정』을 다시 개정하게 된다면, 문체상으로는 어느 정도로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문체’라고 말한 것은, 옛말 투의 종결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을 구성하는 모든 형식적 요소를 포함한다. 때로는 낱말에서부터 조사 어미 및 줄바꾸기와 문장부호에 이르기까지, 두루 다루게 될 것이다. ‘혼인’으로 할지, ‘결혼’으로 할지, 문장부호를 쓸지 말지, 문장의 길이를 길게 유장하게 할지 간결하게 할지 등등, 문의 체(體)를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문의 채(彩)가 달라지기 때문이다.⁴⁾

아무런 사전 논의 없이 개정을 시작한다면, 번역에 있어서 ‘소폭 개정’을

2) 2021년 8월 28일 검색.

3) 원칙으로 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므로, 각각의 본문에서 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4) 박창해, “성경 번역문의 문체와 문체”, 『성경원문연구』 13 (2003.10.), 7-54. 이 글에서는 문체와 문체를 구별하여 말하고 있다.

할 것인지 ‘대폭 개정’을 할 것인지부터 논의가 될 수 있고, 문체에 있어서도 무엇을 왜 얼마나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 심각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 여기서는 문체의 개정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개정의 갈피를 잡아 보고자 한다. 다만 분량 때문에 성경 전체를 다룰 수는 없으므로, 여기서는 중요한 주제를 중심으로, 해당되는 사안들을 예를 들어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2. 문체의 결정

2.1. ‘-라’ 종결형 문체와 ‘-다’ 종결형 문체

아래에서는 『개역개정』 요한복음 본문을, 번역은 전혀 변경하지 않고, 문장 종결형만 『새번역』을 따라 수정해 보았다.

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하나님이셨다. 2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계셨다. 3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없다. 4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있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빛이었다. 5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못하였다. 6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있었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요한이었다. 7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왔다.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함이었다. 8 그는 이 빛이 <아니요>아니었다.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자였다.

문장 마지막 종결형만 현대문의 ‘-다’ 종결 형식으로 고쳤다. 5절의 “못하더라”의 옛 종결형이 내포하고 있는 ‘-더-’의 의미는, 변경하는 ‘-다’ 종결형 문체에서는 살릴 수 없었다. ‘-더라’의 문법적 의미를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⁵⁾

5) 『표준국어대사전』의 인용은 모두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는 누리집에서 검색하였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2021. 7. 13.).

-더라: 어미. 해라할 자리에 쓰여, 화자가 과거에 직접 경험하여 새로 알게 된 사실을 그대로 옮겨 와 전달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어미 ‘-더-’와 어미 ‘-라’가 결합한 말이다.

회상의 ‘-더-’는 과거의 사실을 시상 형식으로 나타내는 ‘-았/었-’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정도의 변화는, 내용이 달라지는 변화라고 할 수는 없다. 같은 사실을 경험한 발화자가 이 두 형식으로 다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 수정 본문에서 보면 번역 내용은 전혀 바꾸지 않고, 문장의 종결형만 바꾸었는데도, 완전히 다른 느낌의 문장이 되었다.⁶⁾ 『개역개정』 독자들에게, 이처럼 개정된 본문을 제공한다면, 같은 번역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문체 변화에 따른 의미의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한다고 해도, 두 본문을 같은 번역이라고 받아들일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개역개정』을 개정한다고 할 때, 번역은 『개역개정』을 유지하더라도 문체를 이처럼 현대 문체로 개정한다면, 독자가 이렇게 개정한 성경을 같은 번역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이다. 중국어 『성경(화합본개정판)』이 본문을 잘 개정하고도 전통적으로 『화합본』을 사용해 온 독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양상이 있다는 점도⁷⁾, 전통 본문의 문체에 대한 충분한 존중을 바탕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말해 준다. 더 근원적으로는, ‘-다’ 종결형의 문장이 현대의 문장체 언어라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라’ 종결형은 고대의 구전 설화에 뿌리가 있는 입말 형식이어서, 소리 내서 읽을 때 ‘-다’ 종결형 문장보다 입말에 훨씬 가깝다는 중요한 장점을 생각해야 한다.⁸⁾

2.2. 시문의 현대문 수정과 의미의 손실

시편과 같은 시문의 경우에는, 종결형을 현대문의 형식으로 변경할 경우에 더욱 큰 느낌의 차이를 수반하게 될 것이다.

6) 성경 본문의 종결형의 변화는, 단순히 문장 형식의 변화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성경의 문체는 이 성경을 사용해 온 독자들의 정서적인 층위에까지 깊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정서적인 영역은 이론으로 설득이 되지 않는다.

7) 이범의, “중역(中譯) 성경 화합본(CUV)과 화합본개정판(RCUV) 비교 연구 -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 박사학위논문(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2018) 참고.

8) 전무용, “어린이 성경의 문체 정립을 위한 소고”, 『성경원문연구』 11 (2002. 9.), 115-142 참고.

『개역개정』

(시 23편) 1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니>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없을 것이다! 2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누이시며, 설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데도>인도하시는구나! 3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도>인도하시는구나! 4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하심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안위하십니다. 5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넘칩니다. 6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와 그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살 것이다!

감탄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얼마간 등가성이 있는 ‘-도다’와 ‘-구나’의 경우에,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감탄 형식인 것은 맞다. 그러나 이와 같이 종결형을 교체하였을 때에, 독자에게, 의미상 등가성 있는 종결형임을 설명할 수 있다 해도, 번역이 같다고 설득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전 본문과 이후 본문을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일 독자는 없을 것이다.

- 도다: 어미. I. (‘이다’의 어간,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있-’, ‘-겠-’ 뒤에 붙어) 1. (예스러운 표현으로) 해라할 자리에 쓰여, 감탄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장중한 어조를 띤다. 훌륭하도다, 우리 학생들.
- 구나³: 어미. (‘이다’의 어간, 형용사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있-’, ‘-겠-’ 뒤에 붙어) 해라할 자리나 혼잣말에 쓰여, 화자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주목함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흔히 감탄의 뜻이 수반된다.

사소한 차이라고 해도, 표현 형식에 변화가 일어나면, 엄밀하게 내용에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의 개정을 논할 때는 이러한 층위의 변화는 고려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새로운 문체를 채택하는 것은 새로운 번역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다.

2.3. 성경에 사용된 중요 용어의 개정

번역 용어의 문제는 문체의 층위보다는 번역의 층위에서 논해야 할 사안

이지만, 문체를 말하는 ‘국한문혼용체’ ‘순한글체’와 같은 용어가 있거니와, ‘문체’가 문(文)을 구성하는 체(體)이므로, 문체를 구성하는 뼈대로서 번역어를 논하는 것은 필요하고 가능한 일이다.

대한성서공회에서는 지난 수 년 동안 『성서 속의 물건들』, 『성서 속의 동물들』, 『성서 속의 식물들』⁹⁾, 『성서 속의 인물들』(근간) 등 성경 번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책들을 출판했다. 이러한 전문적인 분야의 저서들 속에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용어들이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지를 학문적으로 고찰한 결과들이 반영이 되어 있다. 성경을 개정할 때는 이러한 학문적인 성과들을 충분히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성경 본문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가, 새로운 학문적인 성과에 비추어 볼 때 가능한 하나의 이해라면, 유지하는 쪽에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성경을 번역한다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견해라 하더라도, 전통적인 성경을 개정할 때에는 충분히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용어와 새로운 용어가 비슷한 양상으로 대등하게 쓰인다면 전통적인 용어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새로운 용어가 전통적인 용어보다 좀 더 널리 사용된다 하더라도, 틀린 것이 아니라면 기존 용어를 유지하는 쪽에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을 개정할 때에 취하게 되는 보수적인 자세는, 이러한 개정 작업이 기존 성경 독자들을 위한 작업이라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애써 크게 개정을 했을 경우에, 기존 독자들이 낯설어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모든 수고는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개정은 눈부시게 개신(改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적 완결성을 높이는 쪽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쉽다거나 어렵다거나 하는 평가도 마찬가지로이다. 어려운 한자어를 많이 썼다 해도, 배우고 익히면 그만이다. 모를 때 어려운 것이지, 알고 나면 어렵다고 할 것이 없다. 쉬운 우리말이라 해도 생활 속에서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 아니라면 생소하고 낯설 수 있고, 어렵게 느낄 수 있다.

농사를 짓는 농가에서 태어나서 자라난 사람에게는, 일상적으로 늘 쓰는 농사 도구들을 부르는 말들은, 마치 매일 식사 때 사용하는 ‘숟가락, 젓가락’만큼이나 익숙할 것이다. 소를 키우는 농가에서 자라난 사람은 ‘굴레’나 ‘부리망’ 같은 말을 아주 쉽게 알 것이다. ‘부리망’은 ‘소를 부릴 때에 소가

9) 레이 프리츠, 『성서 속의 물건들』, 김창락, 박형대, 양재훈 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2011); 에드워드 R. 호프, 『성서 속의 동물들』, 채은하 외 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2018); 로버트 쿵스, 『성서 속의 식물들』, 권성달 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2015).

곡식이나 풀을 뜯어 먹지 못하게 하려고 소의 입에 씌우는 짚으로 짠 망'이다.¹⁰⁾ 『개역개정』에서는 ‘망’으로 번역을 하였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 물건의 정확한 우리말은 ‘부리망’이다.

『개역개정』

(신 25:4)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소를 키우는 농가에서 자란 사람 가운데 ‘부리망’이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도시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이런 말은 외국어 단어 암기하듯 외워야 하는 말이 될 것이다. ‘망’과 ‘부리망’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면, 현대의 독자와 좀 더 소통이 잘 되는 용어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부리망



『개역개정』

(시 32:9)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 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위 본문에 나오는 ‘굴레’를 정확하게 아는 독자는 얼마나 될까?¹¹⁾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말이나 소 따위를 부리기 위하여 머리와 목에서 고삐에 걸쳐 얹어매는 줄.”이라고 설명하였는데, 눈으로 직접 보면서 이것이라고 하지 않고는 설명을 보아도 확연히 알기 어렵다.

<그림 2> 굴레



성경에 나오는 물건들은,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와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만들어져서 사용된 물건들이다. 필자는 ‘맷돌’이라 하면 둥글넓적한 윗돌 아랫돌로 된 것만 알았고, 판판한 갈판돌(연석[礮石]) 위에 곡식을 올리고, 갈돌로 곡식을 갈아내는 평평한 맷돌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해 본 적이 없었다.¹²⁾ 어떤

10) “부리망”, https://t1.daumcdn.net/cafile/pds75/7_cafe_2008_05_24_23_25_483825461dd02 (2021. 3. 15).

11) “굴레”, 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20100916_82/12sungbok_1284628727005MX8F_f_JPEG/11_%B1%BC%B7%B9_%BF%F6%B3%B6.jpg?type=w2 (2021. 3. 15).

12) 레이 프리즈, 『성서 속의 물건들』, 329. <국립나주박물관>에 우리나라에서 사용되었던, 신안 ‘갈판돌’을 전시하고 있었다. Ibid., 328-330에는 성서 시대에 사용된 손맷돌을 소개하고 있다.

말이 어렵다는 것은, 생활 속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 『개역개정』 사도행전 27:41의 ‘이물’과 ‘고물’과 같은 말도 이러한 말이다.

『개역개정』

(행 27:41)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쳐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배의 앞머리 부분을 ‘이물’이라 하고, 배 뒷머리 부분을 ‘고물’이라 한다.¹³⁾ 강가에 살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늘 나룻배를 타고 건너다니며 살았던 사람에게는 ‘이물’과 ‘고물’은 ‘밥그릇’ 만큼이나 일상적인 말일 것이다. 쉽고 어려움은 이처럼 살아온 환경과도 밀접하다. 이러한 말을 개정할 필요는 없다. 전문 분야의 용어들은 오히려 성경을 읽으면서 배움으로써, 우리말에 대한 지식을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성경의 개정에서는, 성경 자체의 상황을 드러내는 낱말들은, 틀리지 않은 한, 소통이 불가능하지 않은 한, 오해가 될 위험이 있지 않은 한, 기존의 번역을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2.4. 차용어 시대의 한자어와 그 개정

성경이 어렵다고 할 때 종종 언급되는 용어들이 ‘유월절(踰越節)’과 같은 용어들이다. 사실상 이러한 용어들은 중국어 성경의 번역어에서 차용해 와서 사용한 말이다. 수많은 한자어 차용어들이 이제 거의 우리말로 정착이 되었고, 우리의 성경 용어가 풍성해지도록 하는데 기여하였지만, ‘유월절(踰越節)’과 같은 말은 끝내 우리말이 되었다고 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유월절(踰越節)’이 ‘유월절(六月節)’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역한글』을 개정하여 『개역개정』을 완성할 때, 한글로만 적으면 오해할 수 있는 말은 고친다는 원칙이 있었다. ‘구속(救贖)’은 ‘구속(拘束)’과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일부 ‘속량(贖良)’으로 개정되기도 하였지만, 일부는 유지되었다.

13) 어원적으로 보면 ‘이물’은 머리의 ‘이마’와 동근성이 있는 말이고, ‘고물’은 머리 뒤쪽에 머리카락이 뱅뱅 돌아간 자리를 가리키는 ‘가마’와 동근성이 있는 말이다.

『개역한글』

(출 6:6하반)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개역개정』

(출 6:6하반)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써 너희를 속량하여

『개역한글』

(삼하 7:23하반)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열국과 그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개역개정』

(삼하 7:23하반)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개역한글』 출애굽기 6:6에서 ‘구속’이 사용된 문맥을 보면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여서, 문맥만 보면 ‘속박(束縛)한다’는 뜻의 ‘구속(拘束)’으로 읽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본문을 이렇게 읽고 지나간 사람은 자신이 잘못 읽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을 길이 없다. 『개역개정』에서는 이를 “여러 큰 심판들로써 너희를 속량하여”로 개정하여 오해가 될 가능성을 해소하였다. 『개역개정』 사무엘하 7:23에도 ‘구속’이 두 번 나오는데, 위에서 제시한 본문에서 보듯이, 이 말도 ‘구속(拘束)’으로 오해하기가 매우 쉬운 맥락이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전통적인 번역 ‘구속(救贖)’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개역개정』 전체에 걸쳐서 검색을 해서 일관성 있게 개정해야 한다.

‘구속(救贖)/구속하다’의 경우 『개역한글』에서 65회, ‘속량’의 경우 20회 사용되었는데, 『개역개정』에서 ‘구속’은 19회로 줄어들었고, ‘속량’의 경우 56회 사용되었다. ‘구속’은 『개역개정』에서 27회는 ‘속량’으로 개정되었고, 이 밖에도 ‘구원’으로 10회, ‘건져내다’로 1회, ‘구하다’로 1회, ‘건져주다’로 1회, ‘대속’으로 1회,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개정이 되었다. 이들은 때때로 원문의 차이가 개정의 차이로 반영이 되기도 하였고 본문의 맥락에 따라서 더 적합한 용어로 개정이 되기도 하였지만, 때로는 같은 히브리어가 비슷한 맥락에서 달리 개정이 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같은 히브리어 ‘גָּאֵל(ga'al)’이 『개역개정』 출애굽기 6:6에서는 ‘속량’으로 개정되고 15:13에서는 ‘구속’으로 유지되었다. 같은 그리스어 ‘ἀπολύτρωσις(apolutrosis)’가 에베소서 1:7에서는 ‘속량’으로 개정되고 4:30에서는 ‘구원’으로 유지되었다. 16회 나오는 『개역한글』의 ‘구속자’의 경우, 히브리어는 모두 ‘גָּאֵל(ga'al)’인

데, 『개역개정』에서 ‘구속자’로 유지된 경우가 11회, ‘대속자’로 개정된 곳 1회, ‘구원자’로 개정된 곳 4회인데, 모두 다 하나님을 두고 말하는 맥락이어서, 번역에 이렇게 차이를 두어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 물론 두 번역이 모두 가능한 번역이라는 점에는 문제가 없다. 그렇더라도 이와 같은 경우는 번역의 일관성의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¹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구속(救贖)’을 찾아보면, “구속(救贖): 명사. 기독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인류의 죄를 대속(代贖)하여 구원함.”이라고 설명하였다. 이 설명에서는 ‘대속(代贖)’의 뜻을 알기 어렵다. 다시 사전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대속(代贖): 「명사」. 「1」 남의 죄를 대신하여 벌을 받거나 **속죄**함. 「2」 『기독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그 보혈(寶血)로 인류의 죄를 대신 씻어 구원한 일. 「3」 『역사』 종이 주인 대신 벌을 받던 일.

말의 뜻은 대략 알 수 있지만, 여기서는 또 ‘속죄’라는 말이 걸린다.

속죄(贖罪): 1. 명사. 지은 죄를 물건이나 다른 공로 따위로 비겨 없앴. 2. 명사. 기독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인류의 죄를 대신 씻어 구원한 일.

이렇게 사전을 두루 찾아서 대략의 뜻은 짐작할 수 있다 하여도, 끝내 ‘속(贖)’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구속(救贖)’에서 쓴 ‘속(贖)’이라는 말은, 한자 사전에서는 ‘속 바칠 속’이라고 혼을 달고 있다.

속(贖): 1 **속 바치다**, 재물을 바치고 죄를 면제 받다, [書經] 金作贖刑. 2 바꾸다, 물물 교환하다, 무역하다. [史記]解左驂贖之. 3 잇다 ≡ [後漢書] 昔原大夫贖桑不絕氣. 4. 가다, 떠나다. [管子] 贖蟄蟲卵菱. 5 전당 잡힌 것을 되찾다

속량(贖良): 1) 노예를 풀어주어 양민이 되게 함. 2) =속죄. 3) 남의 환난을 대신하여 받음

속죄(贖罪) 1) 재물을 내고 죄를 면하는 일. 속량(贖良) 속형(贖刑). 2) (宗) 예수가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인류의 죄를 대속한 일.¹⁵⁾

14) 여기서는 다만 『개역개정』의 전체적인 개정의 필요를 말하기 위해서 번역의 일관성 문제의 일단을 살펴본 것이다.

15) 동아출판사 한한대사전 편찬부, 『漢韓大辭典』(서울: 동아출판사, 1982.)

『한한대사전』에서는 이처럼 “속(贖): 1 속 바치다, 재물을 바치고 죄를 면제 받다.”로 설명하고 있다. 이 설명에서는 또 ‘속 바치다’가 무슨 말인지는 알기 어렵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속바치다’를 찾아보면, ‘贖바치다: 동사. 죄를 면하기 위하여 돈을 바치다.’로 설명하였다. 또 『한한대사전』에서는 ‘속죄’ ‘속량’ ‘속형’이 같은 뜻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속죄’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건을 설명하고 있다. 이 사전에서 ‘속죄’의 설명 2)항의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건’ 설명은 그대로 ‘속량’의 의미와도 일치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위 사전 예문에, 『서경(書經)』에 “金作贖刑(금작속형).”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짓값으로 돈을 내고 형벌을 면제받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은 『서경(書經)』 舜典(순전) 13장 하반에 나오는 본문이다.¹⁶⁾ 고대 중국의 순임금 때에, 죄인을 풀어내기 위해서 죄의 값으로 대신 바친 재물을 ‘속(贖)’이라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까지 알지 못하면 끝내 알 수 없는 말이다. 이 말은 초기에 중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던 선교사들이 고대 중국의 역사 속에서 찾아낸 말이다. 서신혜 님은 조선시대에 ‘속’이 사용된 용례를 제시하면서, 조선시대와 근대 성서 번역 사이의 차이로 이 말을 설명하였다. 조선 시대에 사용된 한자어 분야에 문외한인 우리에게 아주 좋은 정보를 제시해 준 것이다.¹⁷⁾

‘속’은 조선시대 내내 널리 쓰인 법률 제도이자 법적 용어이다. 오늘날 헌법과 같은 조선의 법전은 『경국대전』이다. 『경국대전』에는 이전(吏典), 호전(戶典), 예전(禮典), 병전(兵典), 형전(刑典), 공전(工典) 등 6개로 나뉘어 각각의 법령이 마련되어 있는데, 속은 이 여섯 부분 모두에서 자주 등장한다. 속전(贖錢), 속량(贖良), 수속(收贖), 속물(贖物), 속죄금(贖罪金), 속죄(贖罪), 속신(贖身), 대구속신(代口贖身), 대속(代贖), 속죄포목[贖罪布木=속목(贖木)] 등으로 이 제도에 관한 자세한 운용 규칙들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이들 조선시대 한자어의 용례에는 ‘救贖(구속)’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한글 성서 번역에서는 중국어 성경의 용어를 차용하여 사용한 것이다.

16) 조선도서주식회사 편, 『原本備旨 書傳集註』(上) (京城[서울]: 朝鮮圖書株式會社, 1920), 41. 한글 언해문: “... 朴으로 教刑을 作호샤되 金으로 贖刑을 作호시며 雷과 災란 肆호야 赦호시고 怙와 終오란 賊호 刑으로 호샤되 欽호며 欽호샤 刑을 恤호시다”

17) 서신혜, “조선과 대한민국 사이에 낀 성서 단어, 복음의 핵심 개념어 ‘속’(贖)”, 『기독교사상』 735 (2020. 3.), 103-113 참고, 특히 105. 서신혜는 성경 속의 한자어에 대한 글을 “조선과 대한민국 사이에 낀 성서 단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10회에 걸쳐 발표했다.

『馬殊曼譯本』

(출 6:6) 以此語於以色列之子輩. 吾乃耶賀華也. 吾將救汝出自以至百多輩之難. 又超汝出奴僕之分. 又贖汝以直臂及以大審也.

『神天聖書』

(출 6:6) 故此對以色列之子輩道云, 我乃神主也, 我將攜爾出以至比多輩所使負之下, 又我將使爾脫伊之縛, 我又要贖救爾等, 以伸出之手臂, 並以大之審作也.

『文理委辦譯本』

(출 6:6) 爾告以色列族曰, 我乃耶和華將拯爾於埃及人, 釋爾負戴, 罷爾役事, 降災以譴爾敵, 施能以贖爾身.

『施約瑟淺文理譯本』

(출 6:6) 緣此爾當告以色列人曰, (主云)我乃耶和華, 我必拯爾脫伊及人所加爾之重負, 救爾罷其苦役, 施展大能, 降重災於伊及人, 救贖爾曹,

『和合本』

(출 6:6) 所以你要對以色列人說: 『我是耶和華; 我要用伸出來的膀臂重重地刑罰埃及人, 救贖你們脫離他們的重擔, 不做他們的苦工

『文理和合本』

(출 6:6) 當告以色列人曰, 我乃耶和華, 將脫爾於埃及人所加之重負, 罷爾苦役, 以奮臂巨災贖爾,

고전 한문인 문리체로 번역한 『新舊遺詔全書(신구유조전서, 마사만 역본, 1822)』 『新舊約全書(신구약전서, 위원회역본, 신약 1852, 구약 1854, 신구약전서 1858)』이나 『文理和合本(문리화합본)』 등은 ‘贖’으로만 번역하고 있고, 모리슨역 『神天聖書(신천성서)』에서는 ‘贖救(속구)’로 번역하였다. 상대적으로 번역 당시의 중국어로 더 쉽게 번역한 번역본들인 『施約瑟淺文理譯本(세레세브스키 역본, 1902)』이나 『和合本(화합본, 1919)』은 ‘救贖(구속)’으로 번역하였다. 한국어 성경의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들은, 조선 시대 한자어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중국어 성경의 번역에서 ‘차용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 다시 성경을 개정한다면 ‘차용어 시대’를 넘어서서 ‘우리말 번역어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점은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개역개정』

(고전 6:9하반)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貪色)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위 본문에서 “탐색하는 자나”는 국한문성경을 보면 “貪色”이라고 되어 있어서 뜻을 얼마간 알 수 있지만, 한글로만 읽으면 ‘탐색(探索)하는 자’로

잘못 읽을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 성경 전체에서 여기 한 번만 나오는 말이고, ‘탐색(貪色)하다’가 일상어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처럼 어렵기도 하고 오해될 가능성도 있지만, 신학적인 중요성 때문에 또 그 용어가 사용되어 온 역사성 때문에 쉽게 고치기 어려운 말은,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문은 유지하고 난외주를 붙일 수 있을 것이다. 더 쉬운 쪽을 선택할지, 전통과 역사를 존중할지, 풀어 가야 할 과제이다. 전통 번역을 유지하는 쪽으로 통일을 하게 될 경우, 새로운 대안 번역을 난외주에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제시한 용어는 그 다음 세대의 성경 개정 때에는 본문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감람(橄欖)’ 같은 경우도 중국어 번역 성경에서 나무 이름을 차용하여 사용했다. ‘감람’ 같은 경우는 중국어 성경에서는 ‘유사 수종 번역’의 범주에서 설명이 된다. 중국에는 ‘감람나무’가 있기 때문이다. 또 실제로 ‘올리브’의 번역어로 ‘감람’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에는 이 나무가 없다. 그러므로 한국어 독자들에게는 여전히 생소한 나무 이름이다. ‘감람’이라는 나무 이름이 성경에 사용된 지 한 세기가 지났지만, 이 이름은 여전히 한자어 차용어의 지위를 크게 벗어났다고 하기 어렵다. 지금은 ‘올리브나무’로 번역하면 누구나 알 것이다. 성경을 처음 번역하던 당시만 해도 ‘올리브나무’는 한국에 알려지지 않았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모든 한국어 사용자에게 올리브나무가 알려져 있다. 이러한 경우에 번역을 개정하는 것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2.5. 인명 지명의 개정

『개역개정』의 음역은, 한국어 음가를 잘 배려한 음역이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발음하기 쉽고 좋게 음역이 되어 있다.¹⁸⁾ 한국어에 더 가깝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원음에서는 좀 떨어져 있다는 것을 뜻한다. 엄밀하게 원음에 가깝게 음역을 개정한다면, 『개역개정』의 음역은 상당히 많이 달라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음역을 달리 하는 일은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할 점이 있다. 1977년에 『공동번역 성서』가 처음 나왔을 때, 거기에 포함된 낯설고 새로운 사람 이름들 땅 이름들은 꽤 충격이었다. 필자의 경우, 우선 이성적으로 그 문제를 이해하려고 했고, 『공동』의 번역의 새로움과 신선함 때문에 오히려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새로운 성경을 읽었다. 음역의 변경은 문장

18) 박동현, “개역한글판 히브리어 고유명사 한글 음역 방식과 히브리어 한글 음역 시안”, 『성경원문연구』 8 (2001. 2.), 106-157 참고.

구조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요소이다. 또한 언어의 의미와도 전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렇지만 음역이 달라져서 느끼게 되는 이질감은 절대로 적은 것이 아니다. 이는 『공동개정』 본문의 음역을 『개역개정』의 음역으로 바꾸어 보면 쉽게 느낄 수 있다.

『공동번역 성서 개정판』 본문	『개역개정』의 음역으로 『공동번역 성서 개정판』의 음역을 대체해 본 경우
1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다음과 같다.	1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다음과 같다.
2 아브라함은 <u>이사악</u> 을 낳았고 <u>이사악</u> 은 야곱을,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았으며	2 아브라함은 <u>이삭</u> 을 낳았고 <u>이삭</u> 은 야곱을,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았으며
3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u>세라</u> 를 낳았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헤스론은 람을,	3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u>세라</u> 를 낳았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헤스론은 람을,
4 람은 <u>압미나달</u> 을, <u>압미나달</u> 은 <u>나호손</u> 을, <u>나호손</u> 은 살몬을 낳았고	4 람은 <u>아미나달</u> 을, <u>아미나달</u> 은 <u>나손</u> 을, <u>나손</u> 은 살몬을 낳았고
5 살몬은 라합에게서 <u>보아즈</u> 를 낳았으며 <u>보아즈</u> 는 룯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5 살몬은 라합에게서 <u>보아스</u> 를 낳았으며 <u>보아스</u> 는 룯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6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6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마태복음 1:1-6까지의 본문이다. 번역은 전혀 바꾸지 않고, 『공동개정』의 음역만 『개역개정』의 음역으로 바꾼 것이다. 음역만 조정했는데도, 본문이 주는 느낌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일상 생활 속에서, 잘 아는 사람이 이름을 개명을 해도, 그 사람에 대한 느낌까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성경 본문에서 음역을 바꾸는 것은 사실상 본문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지만, 이러한 변경조차도 본문을 낯설게 하기도 하고, 정서적으로 친밀감이 사라지게 하기도 한다. 고유명사가 달라진 것은 의미의 변화 없이 문(文)의 체(體)만 달라진 것이다. 문(文)의 체(體)가 달라지면 문채(文彩)가 달라지는 것이다.¹⁹⁾ 곧 문장으로부터 받는 느낌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 문제만이 아니라, 현재 학교 교과서에서 사용하는 역사적인 인물, 역

19) 박창해 님이 문체(文體)를 논하면서 문채(文彩)를 언급한 적이 있다: 박창해, “성경 번역문의 문체와 문채”, 7-54.

사 속의 나라 이름, 역사 속의 지명들 등의 음역과 성경의 음역에 차이가 있어서 혼란을 느끼기도 한다. 『성경전서 표준새번역』에서는 음역은 『개역 한글』의 전통을 따른다고 하였지만, 그중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름들의 일부 음역을, 예를 들면 이집트(애굽), 페르시아(바사), 에티오피아(구스), 스페인(서바나), 키프로스(구브로) 등을, 학교 교과서를 따라서 새롭게 번역하였다.²⁰⁾ 『표준』에서 몇몇 음역을 기존 번역과 달리 한 것은 새로운 세대의 독자를 배려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정도의 지명들은 기존의 성경 독자들에게도 익숙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물론 기존의 성경 독자들에게는 ‘애굽’도 익숙하지만, 새롭게 성경을 접하게 될 젊은이들까지 고려한다면, 이러한 정도는 새롭게 번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기존 성경의 독자에게 더 좋은 성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기존 독자에게 익숙한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면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개역개정』의 음역 방식을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불가피한 부분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²¹⁾ 『개역개정』의 인명과 지명을 교과서의 음역으로 바꾼다 해도, 학생 청년들은 여전히 『개역개정』을 읽기 어려울 것이다. 그들에게는 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새로운 현대 한국어 번역 성경을 읽도록 안내하고 가르쳐야 할 것이다.

특별히 음역에서 문제가 되는 사안은, 같은 사람이 구약에서는 ‘우리야’로 신약에서는 ‘우리야’로 번역되었다. 문제는 『개역개정』의 구약에서 ‘우리야’는 제사장의 아들 우리야 등, 다른 네 사람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신약과 구약의 인명 통일 또는 조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구약 안에서도 동일인 다른 이름, 다른 이 같은 이름 등의 문제로, 독자에게 큰 혼란을 주는 사례들이 있다.²²⁾ 각주를 붙여 주든, 음역을 조정하든, 해결할 필요가 있는 음역들이 있다.

2.6. 본문의 활용과 문장의 길이

문장의 길이가 가독성과 상관 관계가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일이다. 문장이 길다고 해서 반드시 어려운 문장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문장이 길어지면 독서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연구를 통해서도 밝혀져 있다. 유

20) 『성경전서 표준새번역』(서울: 대한성서공회, 1993), 머리말 참고.

21) 박동현, “개역한글판 히브리어 고유명사 한글 음역 방식과 히브리어 한글 음역 시안” 참고. 또한 전무용, “한국어 성경의 ‘요람’과 ‘여호람’ 번역에 관한 소고”, 『성경원문연구』 48 (2021. 4.), 196-221 참고.

22) 전무용, “한국어 성경의 ‘요람’과 ‘여호람’ 번역에 관한 소고” 참고.

병철은 연구를 통해서 스포츠 기사의 문장 길이가 평균 38.61자임을 밝힌 바 있다.²³⁾ 초등학교 1-2학년의 국어 교과서의 평균 문장 길이는 6.22어절이다.²⁴⁾ 기존 번역의 개정에서 이러한 교과서로 교육 받은 사람을 먼저 생각할 수는 없지만, 필요한 경우, 그리고 가능한 경우, 문장의 길이를 짧게 하는 것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대의 ‘-다 종결형’ 문장이 대개 평균 40자 내외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과, 이러한 문장에 익숙한 독자를 생각한다면, 『개역개정』을 새롭게 개정한다고 할 때 문장을 좀 더 짧게 할 수 있는지는 깊이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야 한다. 또 **성경이 절 단위로 활용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중요 정보가 절 단위로 구분이 될 경우 절 단위로 문장을 구분할 수 있는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성경에서 장과 절이 원래부터 구분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장과 절이 본문 자체의 내적 맥락보다 더 우선하여 고려될 수는 없다. 그러나 교회의 현실 속에서 성경은 절 단위로 또는 단락 단위로 인용이 되거나 활용이 된다. 설교 본문이 제시될 때 ‘~ 하고’ ‘~ 하며’ 등의 연결어미로 끝나는 본문이 제시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²⁵⁾ 이러한 면을 모두 해소할 수는 없지만, 개정할 곳이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따로’ 살필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개역개정』 성경은 전통적인 문체에 바탕을 두고 있어서, 연결어미들이 아주 다채롭게 활용되고 있고, 한 문장이 여러 절에 걸쳐 이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내용상 필연적으로 이어져야 할 경우라면, 무리하게 끊어서 문장을 짧게 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원문이 접속어로 이어져 있거나 해서, 그것이 일정하게 각각 하나의 정보 단위로 분리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래서 문장을 끊을 여지가 있는 경우라면, 절 단위로 또는 정보 단위로 문장을 좀 더 짧게 할 수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 좋을 것이다. 독자의 본문 읽기와, 본문 활용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러한 점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가 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 본문들은, 문장을 끊음으로써 한국어 번역문의 문법적인 문제도 해

23) 구민지, “한국어 읽기 교육을 위한 난이도 측정법 연구”, 박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2013), 63-71; 한효석, “한 문장은 40자 안팎이 적당”,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212012.html> (2021. 7. 15.); 유병철, “스포츠기사의 문장길이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2013), 23-25.

24) 김시현 외, “초등학교 1-2학년 국어 교과서 구문 분석”, 『언어치료연구』 27:3 (2018.7.), 97-105. 한 어절이 대략 3~4글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면, 길게 보아도 20~30자 안쪽으로 문장이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5) 이 문제는 윤영탁 교수님과 전화로 많이 대화를 나누었던 주제이다.

소할 수 있다.²⁶⁾

『개역개정』

(창 1:3)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있었더라. 4 그리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나누시니라 5 그리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KJV

(Gen 1:3) And God said,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was light. 4 And God saw the light, that it was good: and God divided the light from the darkness. 5 And God called the light Day, and the darkness he called Night. And the evening and the morning were the first day.

3 וַיֹּאמֶר אֱלֹהִים יְהִי אוֹר וַיְהִי-אוֹר
4 וַבַּיּוֹם הַרְשֵׁף וַיִּרְאֵהוּ אֱלֹהִים אֶת-הָאוֹר כִּי-טוֹב וַיַּבְדֵּל אֱלֹהִים בֵּין הָאוֹר
5 וַיִּקְרָא אֱלֹהִים לְאוֹר יוֹם וְלַחֹשֶׁךְ לַיְלָה וַיְהִי-עֶרֶב וַיְהִי-בֹקֶר יוֹם
אֶחָד פ

『개역개정』

(창 1:20)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하시고>하시니라 21 그리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KJV

(Gen 1:20) And God said, Let the waters bring forth abundantly the moving creature that hath life, and fowl that may fly above the earth in the open firmament of heaven. 21 And God created great whales, and every living creature that moveth, which the waters brought forth abundantly, after their kind, and every winged fowl after his kind: and God saw that it was good.

20 וַיֹּאמֶר אֱלֹהִים יִשְׂרְצוּ הַמַּיִם שָׂרִץ נֹפֵשׁ תַּיִתּוֹ וְעוֹף יְעוּפֵף עַל-הָאָרֶץ
עַל-פְּנֵי רִקְיעַ הַשָּׁמַיִם
21 וַיִּבְרָא אֱלֹהִים אֶת-הַתַּיִתִּים הַגְּדֹלִים וְאֵת כָּל-נֹפֵשׁ הַתַּיִתּוֹ הַרְמֵשֶׁת אֲשֶׁר שָׂרְצוּ הַמַּיִם לְמִינֵהֶם וְאֵת כָּל-עוֹף כָּנָף לְמִינֵהוּ וַיִּרְאֵהוּ אֱלֹהִים כִּי-טוֹב

히브리어 본문 자체가 각 절이 ‘ו’ 접속어로 이루어져 있어서, 문장을 끊고, 접속어를 넣고자 하면 그렇게 개정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로 보인 것이

26) 꺾쇠괄호로 묶은 곳이 이전 본문이고, 밑줄 부분이 수정 본문이다.

다. 전통적인 영어 번역인 KJV도 문장을 끊어서 번역하고 있다. 그리고 문장을 끊을 경우에, “4 하나님이 ~ 나누사 5 하나님이 ~ 부르시고 ~ 부르시니라”와 같이, 연결어미로 이어진 한 문장 안에 동일한 주어가 반복되어 문법적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점도 해소할 수 있다. 특히 위 제시 본문은 초기 성경 번역 때부터 ‘동일 주어 중출’이라는 문법적인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논의가 되기도 했던 본문들이다.

그가 창세기 1장의 “하느님”을 원문대로 보존할 것을 주장했을 때, 레널즈는 미소만 지었고, 한국인들은 “귀하가 말하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인가요?” “아니오.” “그러면 여기에 주어를 반복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했다.²⁷⁾

『개역개정』 창세기 1:20, 21도 같은 양상을 보인다.

『개역개정』

(창 1:20)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하시고>하시니라 21 <∅>그리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창조하시니라 그리하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개역개정』 창세기 1:26-28도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개역개정』

(창 1:26)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하시니라 27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창조하시니라 28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주시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보기 본문들은, 문장을 끊을 경우, 절 단위로 문장이 분리되는 장점도 있고, 연결어미로 이어진 하나의 문장에 동일 주어는 거듭 나오는 문법상

27)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I: 번역·반포와 권서사업』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4), 134.

의 문제점도 해소할 수 있다.²⁸⁾ “그리고”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유치한 문장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문장이 짧아질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생각하면 이러한 정도의 단점은 감수할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한다. 또 문장 접속부사는 전후 맥락 자체에 맡기고 생략할 수도 있다.

이처럼 맥락에 따라 꼭 필요한 경우에 문장을 짧게 끊음으로써 가독성을 높일 수 있다. 현대의 ‘-다 종결형’ 문장으로 개정하지는 않더라도, 짧은 문장에 익숙한 독자들을 조금이라도 더 배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절 단위로 본문을 활용하는 설교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7. 편집 형태의 변화

형태의 변화는 내용의 변화를 수반한다. 세로쓰기 편집으로 편집하여 보급하던 성경을 가로쓰기로 바꾸는 것도,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서 이루어졌다. 성경에 있어서 세로쓰기를 더 권위 있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²⁹⁾ 중요 일간지들이 세로쓰기로 편집을 하다가 1983년경을 전후해서 가로쓰기로 편집을 바꾸고 나서도,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가로쓰기로 편집된 성경의 보급이 이루어지고 확대되었다. 성경전서 『개역한글판』의 경우 1983년에 처음 가로쓰기 성경이 출판되었다.³⁰⁾ 『공동번역 성서』(1977)와 『성경전서 표준새번역』(1993)의 경우 초판부터 가로쓰기로 출판되었고, 시문의 경우에 시 형태로 줄바꾸기를 하여 편집하였다.

『개역개정』 성경을 개정할 때에, ‘시편’의 경우에 줄바꾸기를 하여 시 형태로 본문을 편집한다면, 이러한 변화도 시편을 시로 읽는 데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때로는 줄바꾸기 편집을 위하여 문장 구조의 변화가 필요한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시편 27:5의 경우 산문 형식으로 읽을 때는 어순에 아무런 불편이 느껴지지 않는다. 줄바꾸기를 생각한다면, 두 번 나오는 목적어 “나를”의 위치를 조정할 필요가 느껴진다.

28) 『개역개정』에서 이러한 문장은 다른 곳에서도 종종 볼 수 있다. 삼상 27:1-2; 삼하 1:13-15; 3:12-16; 5:9, 20; 6:1, 9-10, 12-14 등등.

29) “성경만은 세로쓰기를 지켜야 한다”, 월간 『신문고』 (1999. 9.), <http://egloos.zum.com/kbpark/v/336565> (2021. 7. 14.); 목회연구소, “세로쓰기 성경이 필요합니다”, 2019. 9. 30., <https://pkists.net/qna/?mod=document&uid=1388> (2021. 7. 14.).

30) 옥성득, 『대한성서공회사 III: 1945~2002』 (서울: 대한성서공회, 2020), 428.

『개역개정』

(시 27:5)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1안(어순 변화 없이) →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2안(어순 변화 포함) →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나를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3안(어순 변화 포함) →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나를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2안이나 3안 모두 “나를”의 위치에 따라 운율이 달라짐을 느낄 수 있다. 어순을 조정한다고 할 경우에,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먼저 원문을 살펴야 한다. 다음에 예를 든 시편 65:5는,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자가”라는 긴 수식어를 내포하고 있는 본문이다.

『개역개정』

(시 65:5)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지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위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1안 →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지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위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2안 →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지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위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3안 →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지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위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같은 본문은 중간에 줄을 바꿀 곳이 없다.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가 나란히 ‘-에’로 연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와 같이 줄바꾸기를 할 수는 없다. 문장 구조를 살린다면 위 1안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2단 편집을 할 때 한 줄이 다음 줄로 이어지더라도 감수해야 할 것이다. 2안이나 3안의 경우는 문장 구조를 이해하는 것을 약간 방해하는 형식이다. 이 경우 한 줄의 줄바꾸기 단위가 다음 줄로 이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피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점은 번역문의 한국어 구조를 살펴야 하는 일이어서, 국어학자나 시인의 참여가 필요한 부분이다.

짧은 주어 하나를 한 줄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본문도 있다. 『개역개정』 시편 1:3의 경우가 그러한 예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의미의 흐름으로 보아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를 한 줄로 할 수는 없다. 주어를 붙여서 줄바꾸기를 하려면, 서술어 “같으니”와의 상관 관계를 고려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까지를 다 붙여서 적어야 한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몇 가지 예만 들었지만, 이러한 점들을 생각할 때 시편을 줄바꾸기를 하여 편집한다고 하면, 번역 단계에서부터 국어 전문가와 성서학자가 함께 논의하면서 줄바꾸기를 해야 한다. 시편을 줄바꾸기 하여 편집할 경우 쪽수가 많이 늘어나고, 책의 분량이 늘어난다는 점을 생각해야 하지만, 인터넷판을 위해서라도 줄바꾸기가 된 본문을 준비하는 것은 번역자들이 준비해야 할 일이다.³¹⁾

31) 여기서는 본문의 내용에 담긴 양식까지를 말하지는 않았지만, 기도인지 독백인지 탄원

2.8. 『개역개정』과 문장 부호의 사용

현대 한국어로 번역된 성서는 1967년의 『새번역 신약전서』를 비롯하여, 『공동번역 성서』(1977), 『성경전서 표준새번역』(1993) 등 모두 한글 맞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장부호를 사용하고 있다. 『개역한글』의 경우에, 신약은 1958년에 『대지 넣은 신약』을 가로쓰기로 출판하면서 문장부호를 넣은 적이 있다.³²⁾ 그후 1979년에 문장부호를 넣은 『신약전서 개역한글판』이 출판된 적이 있다.³³⁾ 이 성서는 신약만 출판되고, 구약의 출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시 역사를 돌아보건대, 『표준』의 구약 번역이 시작된 것이 1983년이었으므로, 번역의 개선에 대한 노력의 중심이 ‘문장부호가 있는 개역한글판 성경전서’의 작업으로 이어지지 않고, 그 대신 현대 한국어로 새로운 성서를 번역하는 쪽으로 노력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서구의 언어와 달리, 한국어는 조사 어미가 문장부호의 역할을 거의 담당해 주기 때문에, 따로 문장부호가 없어도 평서문인지 의문문인지 감탄문인지, 문장이 이어져 있는지 끝맺었는지, 읽으면 그냥 알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부호가 없는 전통 문체로 이루어진 성경의 경우, 문장부호가 없는 것이 독서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통 문체가 익숙한 독자에게는 문장부호가 오히려 거치적거릴 수도 있다. 그러나 문장부호가 있는 현대의 문장에 익숙한 독자들은, 문장부호가 있으면 문장 형식을 파악하기가 쉬울 것이다. 문장부호가 있는 개역 성경을 발간해 주기를 바라는 기대가 꾸준히 있었다. 그러나 문장부호가 있는 성경을 읽기를 바라는 독자들에게는 현대 한국어로 새롭게 번역된 성서가 보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대안이 있는 셈이다. 그래서 『개역개정』에서는 문장부호를 넣지 않았다. 이제 다시 성경을 개정한다면, 지금 시대의 성경 독자를 위해서 문장부호를 넣어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기존 독자들에게 거부감을 줄 사안이 아니라는 점과, 다음 세대를 염두에 둔 성경 독자의 확대와 신앙 유산의 전승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인지 등등, 줄바꾸기에는 고려해야 할 장르적 특징 문제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줄바꾸기를 한 본문이 준비될 경우, 시편만 별도의 책자로 줄바꾸기를 하여 출판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고, 시편만 줄바꾸기를 한 특별판을 준비할 수도 있을 것이다.

32) 옥성득, 『대한성서공회사』 III, 139. 여기서는 이 성경의 보급이 활발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33) 이 신약전서는 개역 성경의 문장부호 사용에 좋은 모범이 될 수 있다.

2.9. 문법적 오류의 개정

2.9.1. 주격 조사로 사용되는 ‘-께서’의 사용

어떤 사안을 두고 문법적으로 옳고 그름을 확정하기는 쉽지 않다. 경우에 따라서 서로 다른 두 견해가 다 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 하나가 높임의 주격 조사로 사용되는 ‘-께서’의 사용이다.

『개역개정』

(고전 8:6)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위 본문을 보면, 같은 절 안에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와 “그리스도께서 계시니”를 사용하고 있어서, 높임 자리에 ‘-가’를 쓰기도 했고, ‘-께서’를 쓰기도 했다. 그런데 “아버지가 계시니”는 오히려 불편이 느껴지지 않는데, 높여서 쓴 “그리스도께서 계시니”는 불편이 느껴진다. 똑같은 불편이 느껴지는 본문이 『개역개정』 시 130:7 본문이다.

『개역개정』

(시 130:7)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공동개정』

(시 130:7)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처럼 이스라엘이 야훼를 기다리옵니다. 인자하심이 야훼께 있고 풍요로운 속량이 그에게 있으니

『새번역』

(시 130:7) 이스라엘아,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주님께만 인자하심이 있고, 속량하시는 큰 능력은 그에게만 있다.

여기서도 “여호와께서는 ~ 속량이 있음이라” 한 부분이 불편하고 어색하다.³⁴⁾ 이는 ‘-께서’의 경우 동사와만 호응하고, 존재를 나타내는 형용사와는 호응하지 못하는 조사이기 때문이다. 『공동개정』 본문을 “인자하심이 야훼께서 있고”로 한다면, 『새번역』 본문을 “주님께서만 인자하심이 있고,”로 한다면, 그 불편함이 어떠한지 금방 느낄 수 있을 것이다.

34) 탑동교회 임근택 목사께서 필자에게, 이 본문이 자꾸 어색하게 느껴진다고 하시면서 그 까닭이 무엇인지를 물어 보신 적이 있다(2021. 11. 27.).

- ? 철수는 운동장에서 있다.
 ? 철수는 운동장에서 있었다.
 철수는 운동장에서 논다.
 철수는 운동장에서 놀았다.

위 네 보기 문장을 보면, 처음 두 문장은 몹시 어색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운동장에서”에 사용된 ‘-서’의 속성 때문에 존재를 나타내는 ‘있다’와 호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께서’와 ‘-에서’는 같은 조사는 아니지만, ‘-서’의 속성 때문에 둘 다 정태적인 형용사와는 어울리지 못하는 것이다. ‘-께서’는 문장 속에서 주어와 행위의 주체로 나타날 때만 사용할 수 있다. 형용사는 스스로 주체가 되는 말이 아니라, 보는 사람의 느낌을 나타내는 묘사적 표현이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아름다우시다’와 같은 표현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신다’와 같은 사실 묘사와 비교해 보면 차이가 느껴진다.

‘아름답다/ 곱다/ 크다/ 작다’와 같은 형용사는 철저하게, 대상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이 느끼는 주관적인 느낌을 묘사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다. ‘어머님 손이 참 고우시네요/크시네요/작으시네요’와 같은 표현을 흔히 쓰기는 하지만, 형용사가 본질상 말하는 사람의 주관적 느낌을 나타내는 말임을 생각하면, 거기에 대상을 높이는 ‘-시-’를 붙이는 것은 성립이 되지 않는 어법이다. 필자가 이를 ‘주관의 객관화 현상’으로 설명한 바 있지만, 사실상 말하는 사람 곧 대상을 보는 사람의 주관적인 느낌을 표현하는 말에 ‘-시-’를 붙이는 것은 몹시 어색하고 이상한 어법이다.

- ? 철수는 아버지께서 외교관이시다.
 철수는 아버지가 외교관이시다.
 ? 철수는 아버지께서 좋은 차가 있으시다.
 아버지께서 이것을 주셨다.

위 보기 문장도 첫 번째와 세 번째 문장은 몹시 어색하다. 국어학자 가운데는 이 두 문장과 같은 용법이 가능하다고 보는 학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민감한 국어 사용자라면, 명확하게 문법적으로 설명은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께서 ~-이다/있다’ 형식이 불편하고 어색한 것을 느낄 것이다.

『개역개정』

(출 17:7) 그가 그 곳 이름을 맞사 또는 프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었도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계시다’를 동사로만 규정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여호와께서 계신가’ 하는 표현은 문법에 맞는 표현이다. 그러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있다’를 동사로도 형용사로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똑같은 속성의 말인 ‘계시다’를 동사로만 규정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한글학회 『큰사전』에서는 ‘계시다’를 ‘있다’의 높임말로만 규정하고 있지만, 『고려대한국어대사전』에서는 ‘계시다’를 동사로도 형용사로도 규정하고 있다. 이 말에 대한 다른 견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위 본문에서 ‘계시다’를 형용사로 본다면, “여호와께서”는 “여호와가”로 적어야 문법에 맞는 문장이 된다. 텍스트의 속성상 높임을 나타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존재 여부를 묻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진술이 목적인 본문이기 때문이다. 이를 “여호와께서”로 적는 것은 격에 맞지 않는 높임이 되고 만다.³⁵⁾

다음 문장은 “하나님께서 ~ 계실지어다”로 번역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계시다’가 동사로 사용된 것이다.

『개역개정』

(롬 15:33)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 본문에서는 ‘계시다’가 동사로 기원형(명령형)으로 사용이 되어서, “하나님께서”의 ‘-께서’가 문법에 맞는 표현이 되고 있다.

2.9.2. 미래적 의미를 담은 “가까웠다”의 문법적 검토

『개역한글』에서 “천국이 가까왔느니라”(마 3:2)로 표현되었던 본문이 『개역개정』에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로 개정되었다.

『개역한글』

(마 3:2)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하였으니

『개역개정』

(마 3:2)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35) 전무용, “한국어 ‘-이/가’와 ‘-께서’가 나타내는 언어의 응결성과 텍스트성”, 『성경원문연구』 22 (2008. 4.), 161-179 참고.

『개역한글』

(마 4:17)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하시더라

『개역개정』

(마 4:17) 이 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개역한글』

(마 10:7)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왔다 하고

『개역개정』

(마 10:7)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학교에 갔다 왔는데, 멀지 않고 가까웠어.” 하고 과거의 일을 나타낼 때는 “가까웠다”로 쓰는 것이 문제가 없다. “천국이 다가왔느니라” 하고 동사로 말한다면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나 형용사 ‘가깝다’를 동사처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로 쓰는 것은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다. 몇몇 곳은 『개역개정』에서 이러한 표현을 바로잡았지만, 이러한 표현이 남아 있다. 그중에는 사무엘상 4:19처럼, 맥락에 따라 유지할 수 있는 곳도 있다.

『개역개정』

(삼상 4:19)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푸려 해산하고

그러나 다음 본문들은 고쳐야 할 곳이다.

『개역개정』

(창 27:41하반)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가까이 왔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개역개정』

(신 31:14상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가까이 왔으니

『개역개정』

(시 88:3하반)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사오니>가까워졌사오니

『개역개정』

(사 13:6중반)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가까이 왔으니

『개역개정』

(렘 48:16상반)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가까이 왔고

『개역개정』

(겔 7:7중반)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가까이 왔으니

『개역개정』

(겔 7:12상반)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가까이 왔으니

『개역개정』

(겔 22:4중반) 네 날이 <가까웠고>가까이 왔고 네 연한이 찼도다

『개역개정』

(욥 1:15중반)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가까이 왔나니

『개역개정』

(욥 1:15상반)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가까이 왔나니

『개역개정』

(슌 1:7하반) 이는 여호와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가까이 왔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개역개정』

(눅 21:28하반)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가까이 왔느니라/가까워졌느니라 하시더라

『개역개정』

(롬 13:11하반)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가까이 왔음이라/가까워졌음이라

『개역개정』

(롬 13:12상반)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가까이 왔으니/가까워졌으니

3. 맺음말

『개역개정』 성경 개정에 있어서 문체상의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다만 보기로 몇 곳을 살펴본 것이어서, 개정 때는 이러한 관점으로 본문 전체를 살펴야 할 것이다.

- 1) 달라진 한글 표기법 원칙을 본문에 적용하는 것은 당연하고 필요한 일이다.
- 2) 문장의 종결 형식을 포함하여 문체는 기존 성경의 문체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이는 시문이든 산문이든 마찬가지이다. ‘-다’ 종결형으로 성경의 문체를 바꾼다면, 강력한 반발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그냥 외면하고 말 것이다.³⁶⁾
- 3) 번역어의 개정은 번역의 층위에서 결정이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문

36) 이러한 부분은 설문 조사를 통해서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체의 층위에서 본다면, 기존 번역어는 틀리지 않았으면 기존 번역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중국어 화합본의 개정에서, 적지 않은 단음절어를 2음절어로 개정을 했는데, 대부분 이를 통하여 의미는 더 선명해졌지만, 이는 운율에 영향을 미쳤고, 독자들이 낯설어하는 요소의 하나가 되었다.³⁷⁾

4) 한자어 차용어는 이제 우리의 언어의 일부가 되었다. 그러나 한글로만 적을 때 소통이 되지 않는 말들은 끝내 우리말이 되기 어렵다. 이러한 말을 중심으로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5) 인명 지명의 번역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말은 아니지만, 때때로 성경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동명이인’이든 ‘동일인 두 이름’이든, 혼란을 줄 수 있는 경우에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6) 전통 문체의 번역을 개정할 때 문장의 길이를 짧게 하는 것은, 아주 제한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 시도할 수 있다. 특히 성경의 활용의 측면을 생각한다면, 절 단위로 문장을 끊을 수 있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다.

7) 전통 문체를 유지한다 해도, 시편을 줄바꾸기 하여 편집하는 것은 독자의 독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8) 성경 본문에 문장부호를 사용하는 것은, 『개역개정』 성경 독자에게는 좋은 배려가 될 것이다. 아직도 대부분의 교회에서 『개역개정』을 예배용 성경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러한 전통이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 유지되고 전승되리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성경 본문에서 문장부호를 사용하는 것은 현대문에 익숙한 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9)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은 고쳐야 한다.

<주제어>(Keywords)

『개역개정』, 성경 개정, 성경 문체, 차용어, 동음이의어.

New Korean Revised Version, bible revision, bible style, borrowed Chinese word, homonym.

(투고 일자: 2022년 1월 11일, 심사 일자: 2022년 2월 18일, 게재 확정 일자: 2022년 4월 16일)

37) 이범의, “중역(中譯) 성경 화합본(CUV)과 화합본개정판(RCUV) 비교 연구 -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 참고.

<참고문헌>(References)

- 구민지, “한국어 읽기 교육을 위한 난이도 측정법 연구”, 박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2013.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 (2021. 7. 13.).
- 국립국어원, “한국어 어문 규범”, <https://kornorms.korean.go.kr/main/main.do> (2021. 7. 12.).
- “굴레”, 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20100916_82/12sungbok_1284628727005MX8Ff_JPEG/11_%B1%BC%B7%B9_%BF%F6%B3%B6.jpg?type=w2 (2021. 3. 15).
- 김시현 외, “초등학교 1-2학년 국어 교과서 구문 분석”, 「언어치료연구」 27:3 (2018. 7.), 97-105.
- 동아출판사 한한대사전 편찬부, 『漢韓大辭典』, 서울: 동아출판사, 1982.
- 레이 프리츠, 『성서 속의 물건들』, 김창락, 박형대, 양재훈 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2011.
- 로버트 쿵스, 『성서 속의 식물들』, 권성달 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2015.
-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I: 번역·반포와 권서사업』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4.
- 목회연구소, “세로쓰기 성경이 필요합니다”, 2019. 9. 30., <https://pkists.net/qna/?mod=document&uid=1388> (2021. 7. 14.).
- 박동현, “개역한글판 히브리어 고유명사 한글 음역 방식과 히브리어 한글 음역 시안”, 「성경원문연구」 8 (2001. 2.), 106-157.
- 박창해, “성경 번역문의 문체와 문체”, 「성경원문연구」 13 (2003. 10.), 7-54.
- “부리망”, https://t1.daumcdn.net/cafile/pds75/7_cafe_2008_05_24_23_25_483825461dd02 (2021. 3. 15).
- 서신혜, “조선과 대한민국 사이에 낀 성서 단어, 복음의 핵심 개념어 ‘속’(贖)”, 「기독교사상」 735 (2020. 3.), 103-113.
- “성경만은 세로쓰기를 지켜야 한다”, 월간 「신문고」 (1999.9.), <http://egloos.zum.com/kbpark/v/336565> (2021. 7. 14.).
- 에드워드 R. 호프, 『성서 속의 동물들』, 채은하 외 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2018.
- 옥성득, 『대한성서공회사 III: 1945~2002』, 서울: 대한성서공회, 2020.
- 유병철, “스포츠기사의 문장길이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2013.
- 이범의, “중역(中譯) 성경 화합본(CUV)과 화합본개정판(RCUV) 비교 연구 -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 박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2018.
- 전무용, “어린이 성경의 문체 정립을 위한 소고”, 「성경원문연구」 11 (2002.9.), 11

5-142.

전무용, “한국어 성경의 ‘요람’과 ‘여호람’ 번역에 관한 소고”, 『성경원문연구』 48 (2021. 4.), 196-221.

전무용, “한국어 ‘-이/가’와 ‘-께서’가 나타내는 언어의 응결성과 텍스트성”, 『성경원문연구』 22 (2008.4.), 161-179.

조선도서주식회사 편, 『原本備旨 書傳集註』(上), 京城[서울]: 朝鮮圖書株式會社, 1920.

한효석, “한 문장은 40자 안팎이 적당”,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212012.html> (2021. 7. 15.).

<Abstract>

Discussion on Stylistic Revision of the New Korean Revised Version

Moo-Yong Jeun

(Former Secretary of Translation Department,
Korean Bible Society)

The reason for revising the Bible is to provide *a more accurate and clear translation of the Bible and a Bible that better communicates the meaning to readers of existing Bible translations*. Considering this as a premise, the stylistic issues in the revision of the Bible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1) It is natural to apply the latest Korean orthography to the text.
- 2) The style including the sentence ending form should be maintained as it is. This is the same for poetry and prose. If you change the style to the ‘-da’ ending form, there will be strong opposition or you will have to just ignore it.
- 3) On the stylistic level, the existing translation should be maintained unless the existing translation is wrong.
- 4) Borrowed Chinese words are now part of our language. However, it is difficult for words that do not communicate when written only in Korean to become Korean words. You have to find their alternatives.
- 5) With the passage of time, the use of traditional words decreases, and new words can be used more widely. When translating a new Bible, it is desirable to choose a word that is currently used more widely. But when revising an existing Bible, it is necessary to keep the existing terminology for existing Bible readers as long as there is no major problem in communication.
- 6) Although translation of human and place names is not meaningful in itself, it is sometimes a factor that makes the Bible difficult. Whether it’s a person with two names or two or three different persons with the same name, it is necessary to find alternatives when it can cause confusion.
- 7) When revising a translation of traditional style, attempts to shorten the length of a sentence can be made in very limited cases when it is absolutely necessary. Considering the use of the Bible,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it is possible to break sentences in verse units.

8) Even if the traditional style is maintained, editing the psalms to have line breaks can help the reading experience of the reader.

9) Use of punctuation in the Bible text would be a good consideration for Bible readers. Considering that most churches still use the *New Korean Revised Version* for worship, it will be of great help to readers familiar with modern literature. It can be helpful for preachers who adopt the sermon text on a verse-by-verse basis.

10) Expressions that are not grammatical must be corrected.